

#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의 「볼레로(Bolero)」에서 표현된 성정체성 연구 - 남성의 몸 담론을 중심으로 -

정의숙\* · 김주희\*\*

---

I. 서론	IV. 남성의 몸 담론과 「볼레로 (Bolero)」에서의 남성 섹슈얼리티 참고문헌
II. 구분된 신체 권력과 남성성	
III. 「볼레로(Bolero)」의 움직임에서 표현된 남성 섹슈얼리티	V. 결 론 Abstract

---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후기 산업사회 이전 신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생물학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몸' 혹은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몸'과 같은 자연주의적(naturalistic)인 견해였다.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은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점차 '사회 속에서 관계되어 지는 몸'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킨 주요한 원인으로는 클로즈업(close-up)<sup>1)</sup>이나 컴퓨터 보정기술과 같은 영상매

---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sunjang33@gmail.com

1) 클로즈업 중 눈·코·입 등과 같이 인물의 한 부분만을 접사 시키는 것을 ECU(extreme close-up)라고 하며, 허리와 어깨의 중간에서 머리 위까지를 촬영하는 것은 미디엄 클로즈업(midium close-up)이라 말한다. 그리고, 초커 클로즈업(choker close-up)은 입술 바로 아래에서 눈 위까지를 찍는 것을 칭한다.

체기술을 들 수 있다. 영상매체기술들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조작하여 실제 대상 보다 강조하여 전달시킨다. 로라멀비(Laura Mulvey)가 대중영화에 있어 카메라의 시선이 '남성적 응시(male gaze)'를 대변하고, 남성의 욕망과 쾌락을 증진 시킨다고 지적했듯이 영상매체기술은 우리의 신체영역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몸'에서 새롭게 재현된 '만들어진 몸'으로 확장 한다.<sup>2)</sup> 다시 말하면 카메라 영상기법은 '보여지는 몸'을 확대, 축소, 재배치하여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상품화된 몸'으로 환원 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체를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사이버 공간이 있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몸 담론을 발화, 재생산 시키는 전달 공간으로서 몸에 대한 가치 인식을 빠르게 바꿔 놓는데 일조하였다. 그 예로 운동으로 잘 다져진 남성의 복근을 가리키는 '초콜릿 복근', '식스팩(six pack)'이나 강렬한 인상을 갖은 남성을 일컫는 '짐승남', 매력적이고 섹시한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꿀벅지', '찰벅지', '황금골반' 등과 같은 인터넷 신조어의 양산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은어나 비속어가 주로 여성의 몸에 빗대어 사용되던 과거<sup>3)</sup>와 달리 점차 남성의 몸이 회자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들어진 몸'에 대한 시대적 관심은 남성의 몸을 섹슈얼리티적 관점에서 규정짓고 있으며, 상품적 가치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2) 윤난지(1999).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눈빛), pp. 429-477 참고.

3) 남녀(male and female), 소년소녀(boys and girls), 신랑신부(husband and wife), 자녀(sons and daughters),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등에서 보면 남성을 드러내는 기표는 여성 앞에 위치한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관습이 아니라 남자를 긍정적으로, 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치판단의 결과이다. 이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순서가 역전되는 것에서 입증된다. '연놈'들과 에미에비도 모르는 자식의 '에미에비', 동물을 지칭하는 '암수', '비복(婢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여성 관련 단어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영어에서 'man in the street(거리의 남자)'는 일반인, 보통사람을 가리키지만 'woman in the street(거리의 여자)'는 창녀를 지칭한다. 한국 말로는 전문직 여성으로 직역되는 'professional working girl'는 창녀로 통용되는 단어이다. 여성에 대한 은어나 욕설은 주로 여성의 외모나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남성에 대한 욕설은 숫자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외모나 성적타락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남성간에 사용되는 욕들에는 대개 '엄마'를 뜻하거나 빗댄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암캐, 여우, 암탉, 암말, 독사 등 동물에 빗대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은 주로 성적 타락자의 의미 혹은 외모가 '튀는 이'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대개 길들여져야 하는 가축에 비유되곤 한다. 반면 남성은 늑대나 말 등 호색함에 비유되거나 야생동물의 좋은 면에 비견되는 경우가 많다. 정혜경(2003). 『섹시즘(Sexism)-남자들에 갇힌 여자』, p. 373 참고.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성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은 작금의 시대에 변화된 몸 담론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논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성 섹슈얼리티라는 논점을 살펴 보는데 있어 훈련된 신체를 통해 '만들어진 몸'을 근간으로 하는 남성 무용수가 갖는 섹슈얼리티는 어떠한 것일까? 무용 공연에서 남성 무용수는 신체 움직임의 실루엣을 명확히 감상할 수 있는 타이즈나 벗은 상체를 통해 '만들어진 몸'을 도구화하여 관객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무용수들의 몸에 내재된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디스 린 한나(Judith Lynne Hanna)가 제시한 움직임 분석법을 이용하여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의 「볼레로(Bolero)」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남성의 몸 담론과 연결지어 보는 것에 있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같은 구조주의 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서 세계를 개념화 하는 방법이 있으며, 언어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조합과 선택, 유사성의 차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물망 처럼 짜여진 상호작용의 결과<sup>4)</sup>라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시대에 사용되는 남성의 몸 담론과 무용작품을 연결 지어 살펴 보는 것은 춤에 대한 공시(公示)적 접근이 될 것이다. 더불어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분석적 설명을 통해 남성의 몸에서 발현되는 남성성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것은 일반화된 작품을 '다시보기' 하고 '다르게 보기' 하는데 있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베자르의 「볼레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귀진(1990), 정숙희(2001)가 베자르의 대표적인 여러 작품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와 예술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송승민(1998)은 베자르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네오 바르크 양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김인숙(2005)은 「Bolero」에 나타난 동작을 알란 로맥스(Alan Lomax)와 엄가드 바르티니프(Irmgard Barteniff)가 고안한 안무측정표(Chreometries)를 이용해 5명의 실험군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Bolero」 작품을 '성적인 분위기', '관능적인 움직임'이라는 표현으로 기술하

4) 존 스토리(1993).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역)(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p. 109.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자르의 「볼레로」가 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섹슈얼리티적 이미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되는지 움직임 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 현 사회에서 열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들어진 몸’에 대한 담론과 연결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남성 무용수의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인 몸(physical body)이 아닌 사회적 몸(social body)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섹슈얼리티한 몸의 역사성을 규명하여 남성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무용 작품에 대한 통속적 평가를 지금의 관점에서 재평가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방법

음악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이 러시아 무용수인 이다 루빈스타인(Ida Rubinstein)에게 의뢰 받아 작곡한 「볼레로(Bolero)」(1928)는 미셸 포킨(Michel Fokine), 브로니슬라바 니진스카(Bronislava Nijinska),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 안톤 돌린(Anton Dolin), 세르쥬 리파(Serge Lifar)등과 같은 안무가들에 의해 무용 작품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졌다. 뿐 만 아니라 안성수<sup>5)</sup>, 국수호<sup>6)</sup>, 제임스 전<sup>7)</sup>, 김선미<sup>8)</sup> 등과 같은 국내 안무자들에게도 새로운 해석으로 재안무 되고 있는 인기 작품이다. 본 연구가 수 많은 안무자 중에서 베자르의 「볼레로」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며, 남성무용수의 섹슈얼리티한 움직임이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기사에서 따르면 베자르의 「Bolero」를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 속에서 남성 무용수의 관능적인 움직임이 센세이션한 그의 대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sup>9)</sup> 또한, 영국의 일간신문 테레

5) 안성수 픽업 그룹의 대표 레퍼토리가 된 볼레로 시리즈는 1997년 ‘8일간의 여행’이란 부제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에는 ‘mating dance’로 10년 동안 공연된 작품이다.

6) 국수호의 볼레로는 2003년 3월 30일 현대 춤 작가 12전에서 ‘볼레로’ 음악을 사용하여 「볼레로」를 안무 하였다.

7) 서울발레시어터의 제임스 전이 안무한 「Love, Bolero...」는 2009년 11월 30~31일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8) 시댄스의 ‘우리 춤 빛깔찾기’에서 김선미는 「볼레로」를 2009년 10월 12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하였다.

9) Barry Laine이 쓴 1983년 9월 18일자 *The New York Times*, 「BEJART BELIEVES IN BALLET AS THEATER」 기사 참고.

그래프 데일리(The Daily Telegraph)에서는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의 사용과 신비주의, 섹슈얼리티가 드러난 그의 안무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sup>10)</sup>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진자료와 영상분석을 통해 베자르의 「볼레로」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영상분석은 주디스 린 한나(Judith Lynne Hanna)가 제시한 'Stereotypic Nonverbal Gender Behavior' 분석법<sup>11)</sup>을 이용하여 남성 무용수의 움직임을 살펴 볼 것이다. 이 분석 방식은 남성과 여성 무용수의 움직임의 특징을 공간, 시간, 움직임 스타일, 응시, 제스춰, 터치, 움직임의 특성으로 나뉘 보는 것으로 기존의 춤 분석방법에 비해 남·녀의 움직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한나가 제안한 'Elements for Analysing Gender Coding in Dance'<sup>12)</sup>을 이용해 무용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 하여 참고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르주 돈(Jorge Donn)이 출연한 베자르의 「볼레로」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남성 움직임의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여성 무용수가 주역을 맡아 연출한 영상자료<sup>13)</sup>도 함께 비교하여 설명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몸에서 재현되는 과잉 섹슈얼리티와 「볼레로」에서 보여지는 남성 섹슈얼리티를 연결하여 남성의 몸으로 치환되는 몸 담론을 무용학 관점에서 고찰 하도록 하겠다.

## II. 구분된 신체 권력과 남성성

### 1. 남성의 신체 권력과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sexuality)’ 어원을 먼저 살펴 보면 어근이 되는 ‘섹스(sex)’는 라틴

10) 2007년 11월 23일자 *The Daily Telegraph*, 「Maurice Béjart」기사 참고.

11) Judith Lynne Hanna(1988). *DANCE, SEX and GENDE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60-161.

12) *Ibid.*, pp. 253-255.

13) 마르셀 슈바크(Marcel Schüpbach)가 모리스 베자르를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동행하며 찍은 DVD 영상「B comme Béjart」속에서 보여지는 내용 중 여성 무용수 엘리사벳 로스(Elisabeth Ros) 과 남성 무용수 옥타비오 스탠리(Octavio Stanley)의 움직임이 혼재 되어 편집된 볼레로 영상 4분 23초를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어 '섹서스(sexus)'가 변화한 형태로 원래 19세기 이전까지는 섹션(section)의 의미로 인류를 남과 여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누는 의미로 쓰였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섹스'라는 말에 에로틱한 의미가 포함되는 근원을 살펴 보면 남과 여, 이 두 분류의 인간의 교류 및 관계 맺음을 뜻하는 '섹슈얼 인터코스(sexual intercourse)'가 성행위를 지칭하게 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성(sex)'을 지칭하는 이 '섹슈얼리티'라는 말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데, 생물체의 각각 다른 성적 차이를 지칭하는 생물학적 의미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섹슈얼리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적 취향'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담론으로 인식된다. 그 후로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능력, 성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를 뜻하며 보다 포괄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종합적인 담론, 문화, 관습, 제도 등의 의미로 발전된다.<sup>14)</sup> 푸코(Michel Foucault)에 따르면 섹슈얼리티가 공식화되었던 영역은 중세 때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고백을 하는 공간 뿐이었으며, 성직자가 사람들의 성(性)적 활동에 중심에 섰음을 그의 저서에서 계보학적으로 밝히고 있다.<sup>15)</sup> 하지만, 종교개혁의 영향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판단의 거점을 정부(국가)로 서서히 옮겨 놓기 시작했다. 18, 19세기는 정부가 승인한 섹슈얼리티의 형식 즉, 사회의 요구에 따라 생명을 생산하는 사회화된 섹슈얼리티를 사회 정상 범주로 인식 시키고, 이분법적인 성 이미지를 구분된 몸으로 고착시켰다. 다시 말해 권력기관에서 용인된 섹슈얼리티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분법적 성 이미지는 사회적 범주화 과정에서 생물학적 몸이 남성들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불평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시켰다고 사회학자 코넬(connell, R)은 말한다.<sup>16)</sup> '남성다움(masculinity)'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만들어 스스로 '남자답다'라는 것이 사회적 실천에 대의인 것으로 서구 사회에서 오래동안 여겨왔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의지력, 명예, 용기 등이 투영된 기사도, 영웅주의와 같은 것들이 등치되어 오늘날의 언어생활에 까지 영향을

14) 오성근·윤혜준(1998). 『성과 사회: 담론과 문화 공편』, (서울: 나남출판), pp. 18-19.

15) 미셸 푸코(1976). 『성(性)의 역사-삶의 의지』, 이규현(역)(서울: 나남출판, 1990), pp. 39-40 참고.

16) 크리스 설링(1993). 『몸의 사회학』, 임인숙(역)(서울: 나남출판, 1999), pp.160-168 참고.

미치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꼭 다문 입술’, ‘스포츠로 단련된 육체’, ‘신사적 행정가’ 등과 같이 남성다움(masculine)을 재현시키고 있다.<sup>17)</sup> 남성의 가부장적 성(sex)과 관련하여 행동, 지배, 합리성, 마음과 문화가 동일시 되는 것이며, 반면에 여성다움은 수동, 동의, 감정, 몸과 자연과 일치시키는 이원론의 기초적 개념을 반영한다. 국가가 유형화한 성 본능의 규범에서 이탈되고 이분법적 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장 도착자’나 ‘동성연애자’와 같은 성 정체성과 여성스러운 모든 것은 논의에서 제외 되었으며, 남성다운 행위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여성적인(effeminate)’ 이미지는 부드러움과 섬세함이다. 이러한 여성의 이미지가 ‘어머니 신화’를 만들고 동시에 여성의 이중적 모습을 만들어 냈음을 밝히고 있다. 여성의 이중적 모습은 천사/창녀, 처녀/처녀성을 잃은 여성, 아내/정부(매춘부) 등으로 남성에게 대상화된 순수하면서도 섹슈얼함을 지닌 존재이다.<sup>18)</sup> 여기서의 섹슈얼리티는 에로티즘이 강요되며 매혹적인 응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남성의 지배 사회 속에서 성별화 된 사회적 관행들은 단지 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몸의 특징을 부여한다. 또한, 배타적인 성 정체성은 남성과 여성의 몸의 유사점들을 은폐하고 차이점만을 강조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자연적 차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원론적인 성 이미지와 구분되어 부여되는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일상적 행동과 신체적 정체성을 형성할 뿐 아니라,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실행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잠재적 강요가 되었다.

## 2. 춤 속에서 보여지는 남성 섹슈얼리티

낭만시대 무용예술에서 있어 신체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것이었다. 「1830년 헌장(La Charte de 1830)에 쓰여진 테오필 고띠에(Theophile Gautier)의 글을 보면

17) 박형지·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서울: 아카넷), p. 29.

18) 심정순(1999). 『쉽게 쓴 여성문화 예술이론』(서울: 도서출판 동인), p. 108.

“... 봉긋한 가슴, 둥근 어깨, 날씬한 다리와 작은 발을 가졌고, 거기에다가 진정으로 좋은 무용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예뻐다. 만약 어떤 여성에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어진다면 분명히 무용수 일 것이다. ...무용수가 매우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본질이다. 무용은 머리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다가가는 전적으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예술이다.”<sup>19)</sup>라고 기술한다. 그의 평에서 볼 수 있듯이 낭만발레 시대의 여성 무용수의 절대적인 본질은 육감적인 신체와 예쁜 외모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무용수의 예술가적 자질에 찬사를 보내기 보다는 그들의 요염한 자세, 관능적인 춤을 추는 감각적인 신체와 외모에 치중함으로써 여성 무용수의 가치를 외형적인 매력으로만 고정화 시킨다.<sup>20)</sup>

반면에 남성 무용수는 ‘보여지는 몸’의 대상이 아닌 신분의 격차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속에서 여성을 구하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줄거리 속에서 남성무용수는 파 드 두(pas de deux)를 통해 여성의 움직임을 리드하고, 큰 도약을 하는데 있어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남성 신화가 여과 없이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성예술이 여성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천박하지 하지 않아야 하며, 예술성을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 고급스러움을 지녀야 한다는 남성 이데올로기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용 이론가 버트(Ramsay Burt)는 능동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의 가부장적인 관습개념은 클래식 발레에 있어 ‘구경거리가 되는 몸’의 존재가 아닌 남성의 힘을 이용한 동작과 구성을 통해 남성다움의 관념을 더욱 강화시켜 가부장적 힘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sup>21)</sup>

하지만, 이런 고정화된 남성 무용수의 이미지에 반기를 든 작품의 출현은 사회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전통적인 남성성과 대립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니진스키의 「목신의 오후」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니진스키가 발레뤼스(Ballets Russes)의 안무가로 데뷔한 첫 번째 작품으로 1912년 5월 29일 파리 샤토레 극장(Theatre du Chatelet)에서 초연되었다. 그리스 화병에 그려진 색정적

19) 심정민(2001). 『서양 무용비평의 역사』(서울: 삼신각), p. 115.

20) 앞의 책, p. 129.

21) Ramsay Burt(1995). *The male dancer: bodies, spectacles, sexualities*, London: Routledge.



인 에피소드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목신의 오후」는 스테판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의 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드뷔쉬(Claude Achille Debussy)의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을 사용하였다. 의상은 전신 타이즈를 입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조하였고, 턴 아웃(turn-out)을 기본으로 하는 발레동작 대신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turn-in) 동작이나, 발 포인트(point work)를 이용한 스텝 대신에 무릎이 굽힌 굽신 상태에서 뒤꿈치로 디디는 걸음걸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면성 대신 측면을 강조하고, 발레의 우아한 곡선 보다는 손목을 꺾어 직각선을 보여주는 등 당시의 미(美)적 기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를 창출했다. 님프가 흘리고 간 스카프를 주는 목신이 몸을 경련하여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선정적인 성 행위 묘사는 당시 관객들의 야유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니진스키는 이 작품 외에도 손가락의 힘을 빼는 포즈를 취한다거나 어깨나 골반을 비틀어 올려 예각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 당시 남자 무용수에서는 볼 수 없는 혼재된 성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표현하였다.<sup>22)</sup> 본능성을 강조한 이러한 니진스키의 움직임은 베자르의 「볼레로」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니진스키가 「목신의 오후」에서 보여준 성이 혼재된 움직임과는 다른지만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는 여성이 추는 백조라는 고정화된 인식을 해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매튜본이 이끄는 어드벤처 무용단(Adventures in Motion Pictures)이 1995년 11월 9일 영국 새틀러즈 웰즈 극장(Sadlers Wells Theatre)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Chaikovskii, Pyotr Ilich)의 원곡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현대적인 스토리로 새롭게 각색한 것이다. 우아하고, 연약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여성화된 동물로 통념화 된 백조 대신에 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고전발레의 「백조의 호수」에서는 무용수의 손등이 서로 만났다가 떨어지며 그려지는 큰 포물선이 우아한 날개짓을 표상한다. 또한, 두 손을 교차시켜 모으는 동작과 아라베스크 팔 동작에 손끝과 시선을 떨어뜨리는 동작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키는 모티브가 된다. 반면에 매튜본의 「백조의 호수」에서의 백조는 한 팔을 머리

22) 정의숙·김주희(2008), 춤에서 보여지는 성(gender)적 표현에 관한 연구-박호빈의 「꼬리틀 문 물고기」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25, pp. 194-196.

에 없거나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두 손을 모아 백조의 부리를 형상화하여 표현하는데, 머리의 틀을 만드는 동작이나 머리를 만지는 것은 기존의 백조의 호수 보다 더욱 직접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확장한 움직임이다. 속도감과 파워풀한 점프동작은 남성미를 극대화 시키지만 발레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섬세한 움직임은 색다른 남성색 슈얼리티를 발현시킨다. 섹슈얼리티적인 움직임은 니진스키가 「목신의 오후」에서 팔을 머리위에서 엇갈리게 하는 움직임에서 차용했음을 매튜본의 인터뷰<sup>23)</sup>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재된 성의 이미지가 「백조의 호수」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Bolero」의 움직임에서 표현된 남성 섹슈얼리티

#### 1. 모리스베자르의 「Bolero」안무과정과 평가

브뤼셀의 모네 국립극장(Theatre Royal de la Monnaie)에서 1958년 베자르가 이끄는 소규모 발레단이 단기계약을 맺어 공연한 「봄의 제전(Rite of Spring)」이 큰 성공을 거두자 이 극장과 다시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20세기 발레단(Ballet of the Twentieth Century)을 새롭게 창단되었다. 「봄의 제전」의 성공에 이어 1961년 1월 10일에 발표한 「볼레로」는 정확한 줄거리 없이 관능적이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무용으로 표현하였다.

브로니슬라바 니진스카(Bronislava Niginska)가 안무를 재구성한 베자르의 「볼레로」는 보다 미니멀한 의상과 구도로 바뀐다. 술집의 테이블을 빨간색의 큰 원형 탁자로 형상화하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메인 댄서를 ‘바다에 올라오는 비너스’로 해석한다.<sup>24)</sup> 초연 당시 테이블 메인 댄서는 볼쇼이 발레단의 여성 무용수인 마야 프리세카야(Maya Plisetskaya)가 맡았다가 1976년 6월 1일 파리 스포츠 궁에서 있었던 공연부터 아르헨티나 출신의 남자 무용수인 조르쥬 돈(George Donn)이 그 역

23) 엘리스테어 맥킬리(2005). 「매튜본과 그의 날개」, 이동우(역)(서울:어드북스), p. 281, p. 354. 참고.

24) 송승민(1998). 「모리스 베자르의 작품에 나타난 네오바로크 양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4.

을 맡으면서 이 작품이 더욱 유명해졌다. 스페인의 한 여관을 배경으로 술집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집시와 그 춤에 빠져드는 군중과의 상호작용을 모티브로 하는 이 공연은 남성으로 춤추는 집시역이 바뀌면서 여성적인 관능미를 강조하는 작품으로 변모한다. AISD로 사망하기 전 까지 20년 동안 베자르의 애인이자 예술적 파트너였던 돈이 추는 「볼레로」는 1981년에 프랑스 영화 감독 끌로드 를루슈(Claude Lelouch)에 의해 영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Les Uns Et Les Autres)」에 삽입되면서 보다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DVD로 제작된 「볼레로」는 오버랩과 클로уз 업 기술을 이용해 남·녀 무용수를 자용동체 이미지로 연출하고, 신체의 특정 부분만을 클로уз 업 시켜 섹슈얼리티를 보다 확장시켜 전달한다.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당시 받았던 평가는 ‘카바레용의 저속한 작품’ 또는 ‘포르노그래피’, ‘기념비적인 작품’ 등과 같은 극도로 상반된 의견들이었다. 베자르는 이러한 반응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섹스쇼 보다는 원시적 의식에 가깝다’ 라고 말한다. 또한, ‘섹슈얼리티는 육체적인 것 보다 정신적인 것이며, 인도 사원에 그려진 조각 처럼 매우 에로틱한 것이 매우 순수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sup>25)</sup>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에 대해 예찬한 베자르의 말과 원초적인 인간 감성에 대해 표현하고자한 니진스키의 예술적 사상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평가들은 그가 고전적인 발레 테크닉을 무시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센세이션하고, 멜로 드라마틱한 스타일이 베자르의 것이며 유려피안적인 그만의 스타일이라고 평한다. 이러한 그의 스타일은 문학적이면서 철학적인 테마와 남성의 육욕적 섹슈얼리티, 그리고 명확한 연출법을 통해 관객에서 감동을 준다.<sup>26)</sup> 발란신이 ‘발레는 여자가 첫째’ 라고 말하자 베자르는 ‘발레는 남자’ 라고 말한 일화에서 베자르가 갖는 춤에서의 성적 취향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 할 수 있다.<sup>27)</sup>

25) Jennifer Dunning이 1985년 11월 25일자 *The New York Times*에 쓴 「Dance: Bejart Company Performs Bolero」 기사 참고.

26) *New York Times* 앞의 기사.

27) 김채현(2008). 『춤, 새로 말한다 새로 만든다』(서울:사회평론), p. 181.

## 2. 움직임 분석

쥬디스 린 한나(Judith Lynne Hanna)가 제시한 ‘Stereotypic Nonverbal Gender Behavior’ 분석법은 남성과 여성의 움직임의 특징을 공간, 시간, 움직임 스타일, 응시, 제스춰, 터치, 움직임의 특성을 나눠 구분하는 것이다. 남성은 움직임 공간이 큰 영역을 지배하고, 공통의 영역으로 옮겨 다니며, 수직적 움직임을 통해 그룹간의 상호작용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시작한다고 한나는 말한다. 반면에 여성의 움직임 공간은 수평적이며 주로 변화에 반응을 한다고 제시한다.

「볼레로」에서 주역무용수는 원탁이라는 ‘공간’ 안에서 독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움직임의 시작을 먼저 하여 ‘시간’을 주도하고, 원탁 아래에 있는 남성들은 메인 주역무용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기다리다가 주역 무용수의 행동에 응대하고 반응하며 비로소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보았을 때 남성 주역댄서는 남성의 움직임이며, 주변 남성들은 여성의 움직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볼레로」의 모든 출연자가 남성 무용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배치와 역할에 의해 가부장적인 남성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무용수들은 과거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남성의 행위에 대응하는 존재의 맞아 떨어진다.

한나는 ‘움직임의 스타일’에서 남성은 유연한 육체의 움직임과 짝짝 뻗거나 넓게 벌리는 다리 움직임을 하는 반면에 여성의 움직임의 스타일은 좁은 보폭과 발을 꼬고 골반을 앞 쪽으로 한다고 제시한다. 「볼레로」에서 주역 남성 무용수는 주변 남성 무용수들에 비해 점프와 그랑 바뜨망(Grand battement), 2번 그랑 플리에(Grand plie)와 같이 동작성이 큰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두 발을 모아 골반을 미는 듯한 고관절 동작을 통해 여성적인 움직임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의 고관절 운동은 반복과 일정한 속도가 함께 붙어 가속의 절정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마치 남, 녀가 성교를 할 때 움직임이는 피스톤 운동과 흡사하여 성적 섹슈얼리티의 이미지를 구체화 시킨다. 섹슈얼리티적 이미지는 남성 메인댄서와 여성 메인댄서가 모두 출연하여 제작된 「볼레로」 DVD에서 더욱 강하게 각인시킨다. <그림 1>과 <그림 2>는 DVD 영상을 캡처 한 것으로 남성 메인댄서와 여성 메인댄서를 마주보게 설정하여 같은 음악에 같은 움직임을 오버랩 시켜 제작하였다. 이 두 무용수가 일정한 속도로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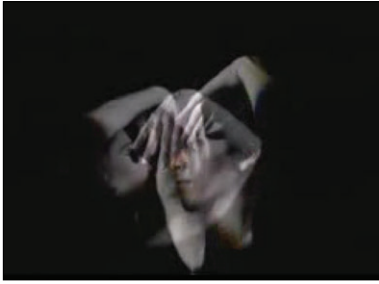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고관절 운동을 하는 영상은 동시에 투사되어 겹쳐졌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성교하는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연상 시키게 만든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두 무용수들은 자신의 가슴부터 성기부분까지 손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의 앵글을 이동시켜 자연스럽게 관객이 무용수들의 몸을 훑게 만든다

이 작품에서 '응시'는 카메라 앵글이 주도하며 이끄는 시선과 무용수의 시선, 관객의 시선세 가지가 있다. 카메라 앵글이 응시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암전된 상태에서 신체의 손가락 부분만을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시켜 클로즈업 시킨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손끝 에 힘을 빼고 늘어뜨리는 듯한 손 움직임은 클래식 발레에 있어 주로 여성적 동작으로 인식되는데, 어두운 암전 배경에서 이 손의 움직임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 3>와 <그림 4>의 부분만을 클로즈업 시켜 이동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마치 좁은 공간 속에서 사적인 공간을 훑쳐보는 듯한 '관음증' 적 시각을 취하게 만든다. 또한,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의 한 면만을 바라보게 되는 한정된 시선의 한계를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로 촬영해 편집함으로써 다양한 방향에서 무용수의 동작을 감상 할 수 있게 조작한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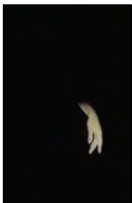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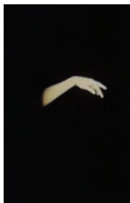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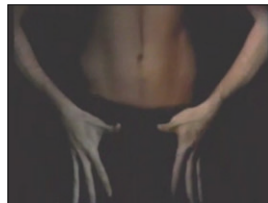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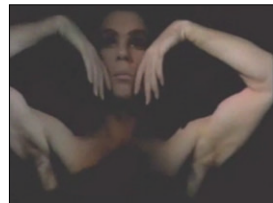


그림 5



고, 무용수가 갖는 주된 응시는 <그림 5>에서와 같이 정면성이다. 동작의 변화 속에서 정면 방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은 한나가 제시한 분석법으로 보았을 때 남성적 시선이며 지속적으로 쳐다 보는 시선은 성적인 매력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관객의 시선은 카메라가 주조하는 응시방향으로 이끌려 가며 그 시선은 카메라의 시선과 함께 고정화 된다. <그림 2>와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손의 움직임이 성기 부분에 머무는 장면을 클로즈 업 시킨 것은 관객의 성적 판타지를 유도하여 섹슈얼리티를 자극하는 시선이 관객에게 강요된다. 따라서, 「볼레로」에서 보여지는 세 가지 시선은 모두 남성적인 응시이다.

‘제스춰’에서 얼굴 표정의 표현이 적은 것은 남성적 행동으로 분류되는데, <그림 5>에서 보이는 것 처럼 「볼레로」의 메인 댄서와 주변 무용수들은 얼굴 표정은 표현을 자제한 무표정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스춰가 남성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무표정한 표정은 작품의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그림 6>에서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며 극도로 절정으로 다다른 정염(情炎)의 표현을 하는데, 델사르트(Francois Delsarte)의 3분법 이론을 참고해보면 입은 육체적이고 성적 표현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여러 감정의 표정을 절제시켜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하다가 유일하게 변하는 표정이 성적 섹슈얼리티가 극명하게 표출된 표현으로 에로스적 분위기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골반 아래 부분이 앞으로 밀렸다가 빠지는 고관절 운동 또한 델사르트가 말한 육체적이고 성적인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작품이 왜 관능적이고 에로티즘을 발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다.

한나의 분석법 중 ‘움직임의 특성’은 손가락, 손목, 팔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림 6



그림 7



그림 8

움직이는 것이 여성적 움직임이라고 분류하는데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팔의 내전(內轉)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여성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터치’에서는 〈사진 8〉에서와 같이 둥근 원탁을 둘러싸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일괄적인 움직임을 하는 종교의식과도 같은 원시주의적인 느낌이 나며, 각 무용수 간의 접촉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볼 때 터치는 남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가 제시한 또 다른 분석법인 ‘Elements for Analysing Gender Coding in Dance’은 능동적인(assertive)것은 ‘A’로, 수동적인(passive)은 ‘P’로 기입하여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볼레로」에서 가장 많은 반복으로 동작된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그림 7〉과 〈그림 8〉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개인적인 움직임으로 메인무용수를 보면 혼자 원탁 안에서 점프나 스트레치 같은 큰 동작들은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좁은 공간 속에서 지배적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P’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8〉에서처럼 팔 다리가 하나의 단위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A’로 구분되며, 주먹을 쥐거나 알통을 만드는 행동을 통해 ‘A’임을 알 수 있다. 메인 무용수와 탁자 아래에 있는 다른 무용수와의 상호작용은 바라보거나 강한 응시를 받고, 그런 변화에 대응함으로 ‘P’로 구분된다.

한나의 분석법으로 살펴본 「볼레로」분석을 다시 정리해보면 ‘공간’에서는 둥근 원탁 위에서 춤을 추는 메인 남성 댄서가 남성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의 남성 댄서는 여성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메인 댄서는 남성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주변의 남성 댄서들은 여성적 시간으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움직임의 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의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었고, ‘응시’는 모두 남성적인 시선을 취하고 있었다. ‘제스처’에서 표정은 남성적이지만, 움직임의 특성은 여성적이었다. 따라서, 베자르의「볼레로」에서의 움직임 표현은 남성과 여성적 특징이 함께 재구성되어 있어 이분법적인 움직임을 벗어난 혼재된 중성적 움직임이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메인 남성무용수와 주변 남성무용수들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움직임이 메인 남성 움직임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움직임 코드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어 남성적 움직임과 여성적 움직임이 혼용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 IV. 남성의 몸 담론과 「볼레로(Bolero)」에서의 남성 섹슈얼리티

남성의 신체는 역사적으로 생산력과 노동력을 창출하는 존재로 힘과 에너지가 남성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가던 야성적인 모습이나 노동을 하는 과거 남성의 몸은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근육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과 같은 사회적 변화는 남성을 신체적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남성의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소비주의, 상업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에서 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개발된다고 말한 것 처럼 여성과 같이 점차 남성도 자신의 육체를 나르시시즘(narcissism)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외모나 신체를 관리, 변형 시킴으로서 자아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자본주의는 새로운 소비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남성용 화장품, 향수, 의류, 액세서리 등과 같은 남성 트렌드를 내세워 사람들이 학습하고 모방하여 내재화 할 수 있는 보편화된 신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편화된 신체에 대한 인식은 몸 관리를 하지 않은 뚱뚱한 신체와 운동을 통해 잘 다져진 신체를 구분하게 만든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비만한 신체를 소유 한 것만으로도 개인의 생활 방식을 게으름과 자제력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고, 외모나 신체를 안 꾸미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놔두는 것은 '제멋대로 방치하는 태도(laisser-aller)' 로 까지 간주한다.<sup>28)</sup> 따라서, 관리된 신체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성들에게까지 요구되어 지는 영역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여성에서 남성으로까지 신체를 가꾸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 인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담론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 몸, 사유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정화열<sup>29)</sup>의 글처럼 남성 신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몸짱'이라는 언어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닌 일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더욱 쉽게 이해된다. 그리고, 남성의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로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갖춘 남자다운 외모의 뜻을 함의하고

28)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 『몸의 인문학적 조명』(서울: 도서출판 명인), p. 159  
참고.

29) 정화열(2005).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서울: 아카넷), p. 93.



있는 ‘미남’이란 단어가 주로 과거에 쓰였다면 최근에는 ‘꽃미남’이나 ‘꽃남’이란 단어로 대체 되고 있는 것에서 변화하는 남성 신체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보통 ‘꽃’은 여성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남성과 결합되면서 과거의 ‘남성다움’과는 차별된 ‘남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남성의 신체 이미지는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이 혼재된 재구성된 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남, 녀가 혼재된 몸 이미지는 더 나가 최근 ‘꽃 보다 남자’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는 것에서 이미 꽃을 넘어 선 남성외모 즉, 여성을 넘어 선 남성 이미지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구성된 남성의 이미지에 미디어 매체는 노출된 상체를 부각하여 섹슈얼리티가 부가된 상품으로 재탄생 시킨다. 이렇게 섹슈얼리티가 부가된 상품은 또 다시 ‘식스팩 복근’으로 대변되는 ‘짐승돌’이란 말로 오늘날의 남성 신체의 미적 기준을 만들어 이상화, 모델화 한다. 소비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남성의 몸이 가공적 신체 존재로 전락해 사물화 되는 또 다른 예로 ‘애완남(펫남)’이란 유행어를 들 수 있다. 이 유행어는 애완동물처럼 귀엽고 말 잘 듣는 착한 남성을 뜻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성=주인 / 남성=애완견이란 등식에서 남성의 신체를 소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권력적 예측 관계에 남성을 위치 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에서 남성의 신체가 자본의 교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신체와 관련된 담론의 양태는 베자르의 「볼레로」에서 보여지는 남성 무용수의 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무용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반복 학습된 신체 훈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몸’을 통해 무대에서 ‘보여지는 몸’으로 전이된다. ‘보여지는 몸’이 되기 위해 몸을 만드는 외모지상주의 사회의 몸은 전시된다는 점에서 무용수들의 몸과 같다. 특히, 「볼레로」에서의 무대인 원탁이라는 공간은 남성 무용수의 움직임에 제한 하면서도 감금된 육체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원탁은 일반 무대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서 관리된 남성의 신체를 상품적 이미지로 전시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볼레로」에서의 남성 무용수들이 상체 탈의와 타이즈 바지를 입는 것은 섹슈얼리티를 더욱 극대화 시키는 것으로 오늘날 미디어가 섹슈얼리티를 부가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공연예술 또한 관객의 소비로 인해 발생되고 유지되는 상품으로 볼 때

「볼레로」의 경우 20세기 발레단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인기 있는 작품이다. 이것은 남성의 신체가 갖는 섹슈얼리티가 관객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 소비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설명해 보면 낭만발레시대에 주된 관객층인 남성과 열성 남성 팬들을 지칭하는 유머로 “그들은 ‘여자를 보는 것(la voix)’이 ‘그녀를 갖는 것’ 이기를 바라는 사람들<sup>30)</sup>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높아져 가는 여권신장과 경제 참여는 여성관객으로 하여금 남성의 만들어진 신체를 정당하게 응시(female gaze)하고, 시선으로 소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담론에서 섹슈얼리티를 강조한 남성을 ‘보여지는 몸’ 상품으로 만들어 남성의 신체를 대상화 하는 것과 같다.

「볼레로」의 움직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조명을 이용해 무용수 몸의 특정 부분만을 볼 수 있게 하고, 카메라의 시선은 크로우즈 업 기술을 이용해 ‘보여지는 몸’을 관찰하는 관객의 시선을 관음적 엿보기의 태도로 이르게 하는 것은 영상 미디어에서 남성의 몸 부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확대시켜 섹슈얼리티를 자극하게 만드는 방법과 일치한다. 맥루헌(Marshall McLuhan)은 텔레비전 시청을 통한 경험이 상상력을 재조직화 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구축된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볼레로」에서의 남성 무용수가 갖는 섹슈얼리티와 영상매체 속의 남성 섹슈얼리티는 새로운 남성의 몸 담론을 발화 시키는 매체가 된다.<sup>31)</sup>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개인의 영역인 섹슈얼리티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회적 몸을 재생산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볼레로」의 움직임 분석에서 섹슈얼리티를 자극하는 요소로 확인된 남성과 여성의 혼재된 움직임은 ‘여성화 된 남성’ 이미지가 트렌드로 떠오른 오늘날의 남성담론과 맞아 떨어진다.

## V. 결 론

모리스 베자르의 「볼레로」를 중심으로 남성 섹슈얼리티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

30) 김말복(2005). 억압에서 해방으로: 춤과 몸, 『무용예술학연구』 16, p. 33.

31) 김주희(2009). TV광고 속의 발레리나가 갖는 기호적 함의에 관한 연구 -롯데백화점 강수진편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 연구』 27, p. 67. 재인용.

되어 전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디스 린 한나가 제시한 분석법을 이용해 알아보고, 오늘날의 남성 몸 담론과 함께 연결하여 변화하는 남성의 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볼레로」의 주역 무용수와 군무 무용수가 위치하는 '공간' 적 위치에 따라 전통적인 성 이데올로기 입장으로 나뉘었다. 원탁 위에서 춤을 추는 메인 댄서는 남성적 공간과 시간을 취하고 있었으며, 원탁 아래에서 춤을 추는 댄서는 여성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연하는 모든 무용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이 작품 속에서 여성적 위치와 남성적 위치가 함께 주어졌다는 것은 과거 클래식 발레에서 남성에게 남성적 위치만을 부여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즉, 「볼레로」작품에서 사용되는 혼용된 위치 공간 구성은 이 작품을 고정된 남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움직임의 살펴보면 '응시'와 '제스춰'에서 남성적 표현을 구사하지만, 움직임의 특성적 측면에서는 팔의 내전(內轉)과 유기적인 몸 사용이 여성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혼재된 움직임 표현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된 기존 움직임에서 벗어난 양성애(bisexuality)적 표현으로 모호한 성적 섹슈얼리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성적 표현은 반복되는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고관절 운동과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절정에 다다른 무용수가 입을 벌리는 행위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확장 시키고 있다.

「볼레로」에서 보여지는 혼종된 성적 이미지 구성과 과잉 섹슈얼리티의 부각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성 몸 담론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힘'이나 '신사' 같이 남성다움이 강조된 과거 남성 담론은 여성에게 주로 비유된 '꽃'이나 '애완' 등과 같은 단어와 합성되면서 혼용된 성적 이미지로 변화 하였다. 또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신조어 범람은 주로 여성의 몸이 전시되고, 응시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달리 남성의 신체가 소비자본주의 속에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고, 섹슈얼리티를 양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이된 것이다. 「볼레로」에서 조명을 이용해 남성 무용수의 몸을 부분적으로 비추는 장면은 엿보는 듯한 관음적 시선으로 관객을 유도하고, 카메라의 앵글이 무용수의 몸을 훑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진 대상화된 몸'을 보도록 주조하여 성적 판타지를 불

러 일으킨다. 따라서, 「볼레로」에서 보여지는 남성의 신체를 응시하는 방법은 담론을 양산해 내는 미디어가 시청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과 같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문법적으로 의미 없이 단어들만 나열되고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유가 모여 발화되고 결정된 개념들의 총체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계속 같은 언어를 말한다면 같은 역사를 재생산할 것이다”라고 한 루스 이리가라이(Luce Irigaray)의 말 처럼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표상하는 몸 또한 사회적 담론으로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몸 담론과 함께 더불어 무용수의 신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볼레로」작품에 대한 통념화 된 평가를 검증하고, 되짚어 봄으로써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재생되는 담론의 지점과 파생되는 무용작품을 연결한 시도가 후속연구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채현(2008). 『춤, 새로 말한다 새로 만든다』, 서울: 사회평론.
- 미셸 푸코(1976). 『성(性)의 역사-삶의 의지』, 이규현(역). 서울: 나남출판,1990.
- 박형지·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19세기 영국의 젠더 형성』, 서울: 아카넷.
- 심정민(2001). 『서양 무용비평의 역사』, 서울: 삼신각.
- 심정순(1999). 『쉽게 쓴 여성문화 예술이론』, 서울: 도서출판 동인.
- 앨리스테어 맥컬리(2005). 『매튜본과 그의 날개』, 이동우(역). 서울: 어드북스.
- 오생근·윤혜준(1998). 『성과 사회: 담론과 문화 공편』, 서울: 나남출판.
- 윤난지(1999).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눈빛.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05). 『몸의 인문학적 조명』, 서울: 도서출판 명인.
- 정의숙·반주은(2004). 『몸짓의 빛 그 한순간의 자유』,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해경(2003). 『섹시즘(Sexism)-남자들에 갇힌 여자』, 서울: 휴머니스트.
- 정화열(2005).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서울: 아카넷.
- 존 스토리(1993).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박모(역). 서울: 현실문화연구,1994.
- 크리스 실링(1993). 『몸의 사회학』, 임인숙(역). 서울: 나남출판,1999.

Judith Lynne Hanna(1988). *DANCE, SEX and GEND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msay Burt(1995). *The male dancer: bodies, spectacles, sexualities*, London: Routledge.

김말복(2005). 억압에서 해방으로: 춤과 몸, 『무용예술학연구』 16, 무용예술학회, 29-62.

김인숙(2005).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의 「볼레로(Bolero)」작품 분석, 『대한무용학회지』 45, 대한무용학회, 21-37.

김주희(2009). TV광고 속의 발레리나가 갖는 기호적 함의에 관한 연구 -롯데백화점 강수진편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27, 무용예술학회, 53-71.

송승민(1998). 모리스 베자르의 작품에 나타난 네오바로크 양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귀진(1990). Maurice Béjart 예술세계에 관한 연구-무용 공연 작품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논문집』1, 창원대학교, 313-326.

정숙희(2001). Maurice Béjart의 작품세계와 예술사상, 『인문과학연구』 4, 안동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3-214.

정의숙 · 김주희(2008). 춤에서 보여지는 성(gender)적 표현에 관한 연구-박호빈의 「꼬리를 문 물고기」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25, 한국무용예술학회, 187-215.

*The Daily Telegraph*(2007. 11. 23). Maurice Béjart.

*The New York Times*(1983. 9. 18), BEJART BELIEVES IN BALLET AS THEATER.

*The New York Times*(1985. 11. 25), Dance: Bejart Company Performs 'Bolero'.

「B comme Béjart」(2005) DVD. mk2.

논문투고일	2010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5일
심사완료일		3월	22일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Sexual Identity Expressed in the 「Bolero」 of Maurice Béjart

- Focusing on Body Discourse of Male -

Euisook Chung · Joohee Kim  
*Professor of Dance/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s purposed to mainly review the 「Bolero」 of Maurice Béjart using the movement analysis method presented by Judith Lynne Hanna in order to examine how the sexuality immanent in the bodies of male dancers is formed and communicated and link the results with discourse about male bodies of today.

Based on the results, in the space of the 「Bolero」, the main male dancer dancing on the round table secured a masculine space and the surrounding male dancers moved in feminine spaces. In terms of time to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in dancer secured masculine time likewise while surrounding male dancers began moving in feminine time. The styles of movements consisted of a mixture of male styles and female styles and gazes taken by the dancers were all masculine eyes. As for gestures, expressions can be said to be masculine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movements can be said to be feminine. Therefore,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Hanna, 「Bolero」 was shown to be an epicene dance with an appropriate mixture of masculine factors and feminine factors. And, when seen by the trichotomy of Francois Delsarte, the mouth openings of dancers or repeated hip joint movements appearing more frequently at the later part of the performance represented sexual expressions which doubled (increased) sexuality.

The bodies of male dancers showing the sexual and epicene movements of the 「Bolero」 are in the same context as that of the directing technique currently shown in image media. The discourse about male bodies that are gradually created to have mixed sexuality and as 'bodies to be shown' expands to the social realm instead of the personal level of sexuality to reproduce male bodies as 'social bodies'.

**keywords:** Maurice Béjart(모리스 베자르), Bolero(볼레로), male sexuality(남성 섹슈얼 리 티), body discourse(몸 담론), Judith Lynne Hanna(쥬디스 린 한나)